“더 새로운 전북교육에 힘 보태야”

2024 전북교육계획

미래를 만드는 교실
책임교육 등 6개 분야
국·영·수 중점학교
방과후 미래교실 등

서 교육감 “전북이 한국교육 중심 되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서거석 교육감이 11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24 전북교육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초·중·고·특수학교장,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북교육계획’을 발표했다.

2024 전북교육계획은 △미래를 만드는 교실(미래)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책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안전)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자치)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공동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미래 분야에는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전북온라인학교 운영, 도교육청 지정 특수교육 연구학교 운영, 장애 영유아 교육,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예술중점학교 운영 등이 있다.

또 책임 분야에는 데이터 기반 학습 지원 앱,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진단 체계 내실화, 학력신장 교원연수 및 연구회 운영, 국어 중점학교 운영, 전북형 토론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기반 구축, 유아교육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어 안전 분야에서는 방과후 미래교실 운영, 돌봄교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거점돌봄센터 구축·운영 등이, 자치 분야에서는 단위학교 학생회 활성화,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운영 등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협력 분야에는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어울림·원도심학교 운영,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육성(10개교), 지역 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가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설립 추진,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예비수험생을 위한 올인원 대입 진학 컨설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분야에서는 기초영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AI 활용 영어듣기 프로그램 지원,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도교육청 지정 영어중점학교 운영 지원, 수학중점학교 운영,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인성교육지원단 운영 등이 추진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의지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좀 더 혁신적으로 달라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고 더 새로운 전북교육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 10~11일 2일간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탐방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몰드김제 현장 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회 주어진다면 다른 곳도 가고파”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대상 도내 기업탐방… 한국몰드김제 등 3곳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0~11일 2일간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기업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몰드김제, ㈜정석케미칼, ㈜디딤돌 등을 방문해 현장 견학과 현직자 인터뷰 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 및 직무 소개 △채용 트렌드 및 산업 동향 △채용 절차 및 현황 등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탐방에 참여한 강경호 학생(기계자동차공학과 3년)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업과 직무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도내 기업도 탐방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은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청년과 도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취업-채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탐방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 채용 연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티칭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교수자 강의 역량 개발 등 목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11일 티칭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티칭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교과목 설계, 운영, 평가 등의 성찰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 역량 개발과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획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간호학부 장효열 교수가, 우수상에는 치위생과 김영임 교수와 유아교육과 김나림 교수가 수상했다. 각 수상자들은 본 대학 강단에서 실제 강의를 통해 쌓은 우수한 교 학습 경험을 티칭 포트폴리오로 작성해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교수학습개발센터 윤형완 센터장은 “우수한 티칭 포트폴리오는 사례집 형태로 발간해 공유할 계획”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11일 티칭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이 제작한 티칭 포트폴리오는 향후 교수학습방법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인성교육 시행계획 마련

도교육청, 언어문화 개선 중심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실시된 인성교육 활성화 운영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주제별 인성교육 다양화로 인성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로 인성교육 내실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언어습관 개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300개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6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 신청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인성교육 중점학교는 바른 말을 통해 또래 간 관계를 개선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에 뒀다.

또한 인성 중심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유·초·중등 연계 인성교육과정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전문강사단 구성 및 지원,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함양 지원,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부끄럽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위한민연대, 부정부패 의혹에 교육감 해명 촉구하기도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부끄럽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며,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한 시도교육청은 강원과 전북 두 곳 뿐이라고 했다.

특히 “정책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로 이뤄지는 ‘청렴노력도’와는 달리 조직 내외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 및 경험을 설문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전북교육청 청렴 수준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설문 항목에는 부정청탁, 특혜제공,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금품요구 경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어 작년 9월 교과서 제작 입찰을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과, 11월에는 5억 원대의 홍보전광판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가 조달청에 의해 반려되기도 했다는 것.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연이은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감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부끄럽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 교사들은 왜 갑자기 특정 기종의 스마트기기를 밀어넣고 멀쩡한 전자칠판을 교체하는지, 외부기관에서 잠시 빌려와도 되는 CPR 교구 ‘애니’를 왜 사라고 하는 건지, 예산 낭비로 생각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민간사업자들을 끼고 진행되는 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의 부회장과 골프 여행을 떠나려다 부랴부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교육청의 청렴도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본질적 이유는 교육감과 측근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정실인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며 “정실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갑질 및 비위 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청렴은 떠들썩한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며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전북교육이 부끄럽다. 연이은 부정부패 의혹에 교육감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전북대 장수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장수군이 ‘전북대학교 장수군 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차에 걸쳐 모집한다.

장수군은 2019년부터 전북대학교와 산업체 계약을 체결해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농업시스템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수업은 평일 야간에 이뤄져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군은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재학 시에는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졸업 시에는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 학사 학위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총 120학점(전공 102, 교양 18)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집대상은 고등학교 졸업(동등한 학력 인정) 이상 학력 소지자로 관내 농·생명분야 산업체 등에 10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및 대표자 또는 관내 영농조합 법인에 10개월 이상 소속돼 있는 조합원 등이다.

원서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학과 사무실과 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2월 15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오늘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위원은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수를 감안해 지역별로 나눠 총 18명 선발할 예정으로 전주 3명, 익산·군산 2명, 그 외의 지역은 각 1명씩이다.

모집기간은 12일부터 22일까지로, 희망하는 도민은 서류를 갖춰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주민참여예산제→예산위원 공모신청 순으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북교육청 예산과로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거나, 전북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해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 결과는 2월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지역별 위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예산위원 연수 과정을 수료해야 예산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촉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간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